

변화 택한 외인 선발... 두산·키움 전원 '물갈이'



NC는 올 시즌 KBO리그 올림왕 밧 데이비스와 15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NC 선두타자 데이비스가 9월25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SSG 랜더스 대 NC 다이노스 경기 4회 말에 타석에 올라 점프하고 있다.

2025시즌 KBO리그 외국인 선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변화'다.

2024시즌 KBO리그에서 뛰 선수 가운데 원소속팀과 재계약에 성공한 건 13명에 불과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선수 3명 전임과 재계약한 팀도 없다.

16일 현재 KBO리그 10개 구단 가운데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치지 못한 팀은 KIA 타이거즈와 NC다이노스 둘뿐이다.

올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는 부동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총액 180만 달러에 계약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새로운 선수로 채운다.

이미 오른손 강속구 투수 애덤 올러와 100만 달러에 계약한 가운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3년 연속 20홈런을 넘긴 거포 1루수 패트릭 위즈덤과 사인을 눈앞에 뒀다.

NC는 올 시즌 KBO리그 홈런왕 밧 데이비스와 150만 달러에 재계약했고, 최고 시속 159km를 던지는 우완 라일리 톱슨을 새롭게 영입했다.

나머지 한자리는 올해 KBO리그 투수 골든글러브를 받은 에이스 카일 하트와 재계약하는 게 최선이지만, 하트가 빅리그 복귀를 추진 중이라 '플랜B'를 가동 중이다. NC 구단 관계자는 "하트와도 결별하기로 한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8개 구단은 외국인 선수 구성을

KBO 재계약 외인 13명 불과 KIA는 투수 네일만 붙잡아 NC 투수 하트 잔류 공들이기 kt 로하스·쿠에바스는 건재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2025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올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고배를 마셨던 삼성은 투수 테리 레예스와 120만 달러, 내야수 르윈 디아즈와 8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또한 2023년과 올해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 우완 아리엘 후라도를 영입해 그나마 익숙한 얼굴들로 자리를 채웠다.

kt wiz 역시 우완 윌리엄 쿠에바스와 150만 달러, 외야수 멜 로하스 주니어와 180만 달러에 재계약한 뒤 키움이 재계약을 포기한 좌완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를 영입했다.

LG 트윈스는 가을야구에서 투혼을 펼친 우완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130만 달러), 내야수 오스틴 딘(170만 달러)과 재계약하고 우



두산 새 외국인 투수 콜 어빈, 두산베어스

완 요니 차리노스(100만 달러)를 새롭게 영입했다.

SSG 랜더스는 우완 드루 앤더슨에 120만 달러, 외야수 기예르모 에레디아에 180만 달러를 주고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고, 한국계 투수 우완 미치 화이트를 새롭게 영입했다.

롯데 자이언츠도 좌완 찰리 반즈(150만 달러)와 외야수 빅터 레이예스(125만 달러)와 계약하고, 나머지 한자리만 새로운 얼굴인 좌완 터커 데이비스(95만 달러)로 채웠다.

2025시즌을 새 구장에서 맞이하는 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 대체 선수로 KBO 리그에 왔던 우완 라이언 와이스(95만 달러)와 내년에도 함께한다. 와이스와 짝을 이룰 투수로 코디 폰세(100만 달러)를 신규 영입했고, 타지는 외야수 에스테반 플로리얼(85만 달러)로 채웠다.

두산 베어스와 키움은 올해 뛰 외국인 선수 전원이 결별한 구단이다.

두산은 좌완 콜 어빈, 우완 토머스 해치, 외야수 제이크 케이트 새 외국인 선수 3명에게 모두 100만 달러씩 안겨줬다.

키움은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 타자 2명, 투수 1명'을 쓰는 팀이다. 후라도, 헤이수스 등 검증된 '10승 투수'를 내보낸 키움은 좌완 케니 로젠버그(80만 달러)에게 한자리를 맡겼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민헨전 2골 폭발 이재성, 분데스리가 베스트 11 선정

'독일 거함'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트린 이재성(마인츠-사진)이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 14라운드를 빛낸 '베스트 11'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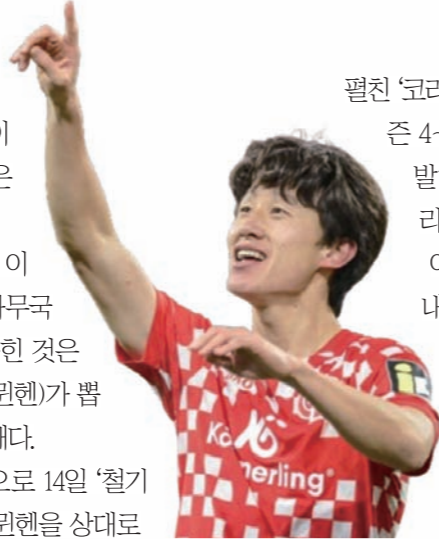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분데스리가 14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11명의 선수로 구성된 '이주의 팀'을 발표했다.

3-5-2 포메이션으로 구성된 '이주의 팀'에서 이재성은 왼쪽 날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재성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선정 '이주의 팀'에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한국 선수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사무국 선정 '이주의 팀'에 뽑힌 것은 4라운드에서 김민재(뮌헨)가 뽑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재성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철기둥' 김민재가 버티는 뮌헨을 상대로



펼친 '코리아 Derby'에서 이번 시즌 4~5호 골을 잇달아 폭발하며 마인츠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재성에게 멀티골을 내준 뮌헨은 정규리그 개막 무패 행진을 13경기에서 멈추고 첫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경기가 끝난 뒤 분데

스리가 사무국은 이재성을 마인츠-뮌헨전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고, 14라운드 '이주의 팀'에도 이재성을 포함했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이재성을 베스트 11에 뽑은 이유에 대해 "이재성은 뱅상 콩파니 감독이 이끄는 뮌헨의 정규리그 개막 무패 행진을 꺾은 마인츠의 쇼에 주인공이었다"며 "이재성은 단 두 번의 슈팅으로 전반과 후반에 각각 득점하며 2-1 승리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스가노, MLB 볼티모어와 1년 계약

일본프로야구(NPB)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에이스로 오랜 시간 활약했던 오른손 투수 스가노 도모유키(35)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다.

ESPN과 AP통신 등 주요 매체는 17일(한국시간) MLB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단이 스가노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볼티모어 구단이 정확한 계약 액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ESPN은 총액 1300만 달러 규모라고 전했다.

스가노는 NPB의 사이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와무라상을 두 차례 받았다.

센트럴리그 최우수선수(MVP)는 세 번 받았고, 올 시즌에 15승 3패, 평균자책점 1.67로 맹활약했다. 스가노는 2020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빅리그 진출에 도전했으나 계약에 실패하고 요미우리에서 잔류한 바 있다.

스가노는 포심 패스트볼 평균 시속이 150km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교한 제구와 커터·슬라이더·스플리터·싱커·커브 등 다양한 공으로 타자를 상대한다.

스가노의 NPB 통산 성적은 276경기 136승 74패, 평균자책점 2.43이다.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golf.co.kr